

건강 칼럼

평소에도 귀가 딱딱? 이관 기능 체크하세요

평상시에도 비행기 탔을 때처럼 귀 딱딱함이 반복된다면 이관기능을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

이관은 유스타키오관이라고도 하는데 콧구멍 속(비인강)과 고막 안쪽의 공간(중이강)을 연결하는 통로다. 중이강 내 기압을 조절하는 기관으로 평소에는 닫혀 있다가 침을 삼거나 하품을 하면 조금씩 열린다.

귀가 딱딱하고 답답한 느낌을 귀충만감이라고 하는 데, 주로 비행기를 탔을 때 경험한다. 이를 항공성 중이염이라고 하는 데, 갑작스러운 기압 변화에 귀 안쪽과 바깥쪽의 기압이 같도록 유지하는 이관이 압력 조절을 제대로 하지 못해 발생한다.

하지만 기압변화와 상관없는 환경에서도 귀충만감이 반복되거나, 1주일 이상 지속된다면 이관기능장애를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이관기능장애는 증상에 대한 문진과 함께 이경검사, 청력검사, 이관기능 검사 등을 통해 진단한다. 남성보다는 여성에게서 발병률이 높



신정은

건국대병원 이비인후 두경부외과 교수

고, 80대에서 가장 많이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관기능은 평상시 닫혀있어야 하는 이관이 항상 개방돼 발생하는 개방증과 개방이 필요한 상황에서 열리지 않는 협착증으로 나뉘는데, 증상은 유사하다.

이관기능장애는 이염이나 난청,

중이염, 어지럼증 등 다양한 귀 질환 환자에게서도 많이 나타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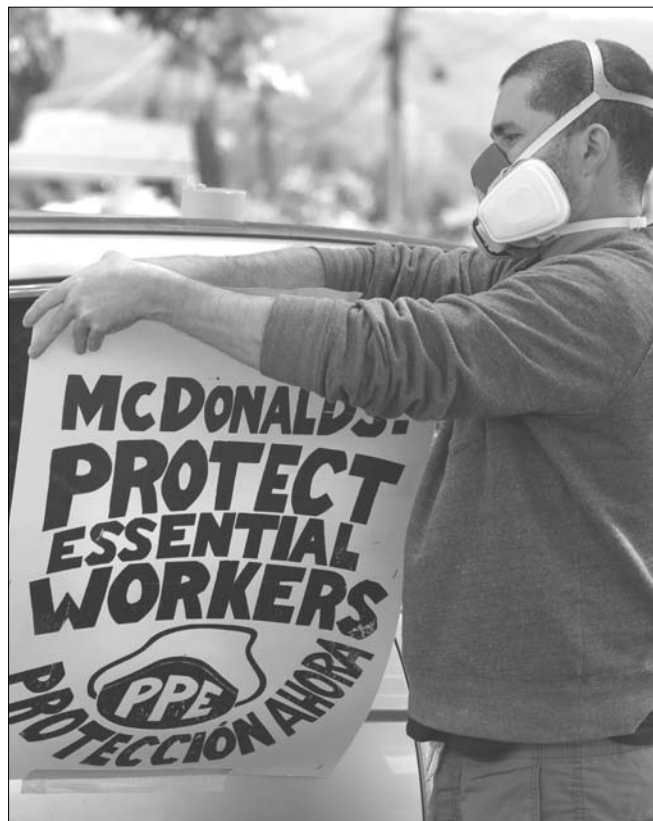
경증인 경우에는 보통 저절로 증상이 나아진다. 물을 마시거나, 하품을 하거나, 껌을 씹거나, 귀로 바람을 불어넣는 방법으로도 증상이 나아지는 경험을 한다.

하지만 충농증으로 인한 코막힘이 오래되거나 이관에 염증이 발생한 경우 비대한 코편도(아데노이드)로 인한 이충만감은 항생제를 복용, 코세척, 비강스프레이 등등 각각 상황에 맞는 치료가 필요하다.

만성인 경우, 이관 삽입술이나 아데노이드 제거술을 병행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증상이 다양하고 정도도 다르기 때문에 2주 이상 증상이 지속된다면 전문의에게 진료를 보는 것이 좋다.

사진으로 보는 지구촌 소식

맥도날드, 직원 보호 장비 부족



21일(현지시간) 미 캘리포니아주 오글랜드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마스크를 쓴 한 남성이 맥도날드 직원들을 위한 개인 보호 장비가 부족하다고 주장하며 시위하고 있다.

독자제언

“청소년들 타인의 신분증 사용하면 큰일나요”

코로나 19 확산으로 한달 넘은 개학 연기에 이은 온라인 개학으로 가정에서 학교 수업을 하고 있다. 이로 인해 선생님과 부모의 관심에서 벗어난 청소년들은 흡연, 음주 등 각종 일탈 행위가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최근 청소년들이 술을 마신다는 신고로 현장 출동하여 보니 여학생들이 모여 술을 마시고 있었다. 문제는 이 학생들이 업소 출입 시 각자 타인의 신분증을 제시하고 들어온 것이다. 여기서 우리를 안타깝게 하는 것은 이 청소년들은 자신의 이런 행동이 얼마나 심각한 범죄인지를 모른다는 것이다.

타인의 신분증을 위, 변조하는 공문서위·변조죄의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고, 담배, 술 등 구매를 위해 사용하는 공문서부정행사의 경우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무거운 범죄 행위이다.

또한, 업소의 경우 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유해약물 즉, 술, 담배 등을 판매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상황으로 영업을 힘들어진 일부 업소들이 청소년에게까지 술을 판매하는 현상이 벌어지는 것으로 사료된다.

지구대는 심야시간대 청소년 비행과 일탈행위 예방위해 청소년 유해업소 중심으로 가시적 순찰 및 점검에 집중하고 있고, 더불어 사회적 거리두기가 연장된 만큼 코로나 19 감염 확산 방지 활동 또한 병행해 전개하고 있다.

온라인 개학과 함께 날씨가 따뜻해져 청소년들의 외부 활동이 증가하고 있는 시기에 각종 범죄로부터 우리의 아이들을 보호하여 바르고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 사회가 더욱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야겠다.

김주일 익산경찰서 신동지구대 경사

전주매일

독자 여러분의 의견이 담긴 기고와 투고를 기다립니다.

(우)560-912 전북 전주시 완산구 서농송동 568-80 승주빌딩 4층

전주매일 홈페이지 www.jjmaeil.com

사설

코로나 사태를 당해 근로자와 함께 가는 전주시

전주시가 취약 계층과 함께 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마음이 든든하다. 코로나 사태를 맞아 다들 어려운 때에 전주형 재난 소득 신청을 받는 중에 또다시 혼란한 소식을 전해주고 있다. 고용위기 극복을 위한 '해고 없는 도시 전주 상생'을 선언한 것이다. 그런데 이게 일방적인 것이 아니고 고용유관 기관과 기업인 등 여러 단체 관계인들이 모여 뜻을 같이해 선언한 것이기에 믿음이 간다.

코로나 사태를 맞아 해고 광풍 조짐이 있는 이때 전주시가 발 빠르게 나선 것은 평가할 만한 일이다. 요즘 코로나 사태로 다들 힘들어 하는 가운데 근로자 계층이 더 힘들어하리라는 것은 누구나 짐작할 수 있는 것이다. 시절이 하 수상하면 근로자들은 경영주의 눈치를 아니 살필 수가 없게 돼 있다. 따라서 전주시의 그같은 능동적인 태태력은 고마운 일이다. 그래서 더욱 당부하고자 하는데 전주시는 근로자들의 고용 안정을 위해서 관심을 갖고 약속대로 되고 있는지 지켜봐야겠다. 우리 전북은 다른 광역시도와 비

교해 일지리가 적다. 그만큼 근로인들이 상대적으로 많지 않다. 그런데도 고용 환경은 열악하다. 두달여 코로나 사태를 견디면서 경영이 힘들어진 기업인들이 근로자들을 대량 해고하려는 유혹을 받기 쉬운 때라는 이야기다. 군산 현대조선소와 GM의 해고 사태도 견디기 힘들었는데 이번엔 전주 쪽 기업인들마저 경영 압박을 핑계로 근로자들을 해고하기에 이른다던 문제가 더욱 심각해질 게 뻔하다.

전주시가 근로자들과 함께 가는 모습을 보여준 것은 그 의미가 크다. 그것은 인구 감소를 막는 일로도 해석이 된다. 전국의 광역시도 중에서 매년 우리 전북의 인구 감소 폭이 제일 큰 것은 두루 잘 알려진 사실이다. 유출인구의 증가는 우리 지역 사회의 여간 큰 숙제가 아닐 수 없다.

전주시가 도내 여러 시군의 말뼌답게 모범을 보이고 있는 것은 그 래서일 터이다. 코로나 사태를 견디고 있는 이 어려운 때에 전주시가 '해고 없는 도시 전주 상생'을 선언한 것은 매우 고마운 일이다.

코로나 퇴치의 희망 굳히기

코로나 퇴치의 희망이 보이고 있다. 새로운 확진 환자의 수가 눈에 띄게 줄어든 것이다.

전국적으로 신규 확진자가 확 줄어들어 의료진들의 피로도를 완 화시키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아직 안심할 때는 아니다. 이런 매일 수룩 시민정신을 발휘해야 한다. 그래서 이제 코로나 퇴치의 희망을 굳히기로 들어가야 한다. 했던 말 또 하고 또 하지만 방역 당국이 시민에게 호소하는 것은 사회적 거리두기다.

이웃 나라 일본의 경우를 반면교사의 사례로 보아야 한다. 일본은 그동안 사회적 거리두기를 등한히 했다. 그 결과 사태가 심각하다. 연이어 500여명 씩 환자가 발생하더니 지금도 하루 3백 여명 수준으로 환자가 발생하고 있다. 그래서 누적 확진자 수가 이제 우리 한국의 그것을 넘어버린지 오래 되었다.

유럽의 이탈리아와 스페인과 프랑스와 독일도 반면 교사의 사례로 보아야 한다. 그 나라의 국민들은 그동안 방역 당국과 의료진에 협조하는 정신이 부족했다.

다들 잘 알고 있는 바 미국의 사태는 더욱 심각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처음에 코로나가 지나가게 하자며 관용을 갖처럼 말했다. 그러나 현재 미국은 지구상에서 가장 나쁜 본보기가 되어버렸다. 22일 아침 9시 기준 누적환자가 82만3257 명에 이르고 사망자는 4만4806 명이나 된다. 그런데도 경제를 살려야 한다며 공화당을 지지하는 이들은 거리로 뛰쳐나와 예전과 같은 자유를 달라고 시위하고 있다. 미국이 과연 말 그대로 세계 최강의 민주 국가가 맞는지 알 수 없는 오늘날이다.

한국이 발병 국가들 중에 모범 사례의 대상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아직 안심해선 안된다. 우리 전북의 경우도 그렇다. 다른 광역 시도와 비교해 청정 지역이라고 해도 안심해선 안된다. 계속 방역 당국이 호소하는 대로 해야 한다.

손을 의식적으로 자주 씻고,외출 시에는 마스크를 끼고, 사람과 사람 사이 2미터 이상의 거리두기를 실천해라. 그렇게 해서 코로나 퇴치의 굳히기에 들어가야만 한다.

사외기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

“더 좋은 신문, 더 사랑 받는 신문, 독자와 함께하는 신문”을 위해 전주매일의 전 직원들은 ‘전북 최고의 신문’을 제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중앙지를 답습하는 형태를 벗어나 보다 깊이 있게 내 고장 소식을 빠르고 정확히 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당신의 어려움을 속 시원하게 풀어 드리기 위해 대안적 비판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 단계 더 성숙한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지역발전의 수레바퀴를 힘차게 굴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인간중심 · 도덕중심 · 지역중심 **전주매일**